

전북 찾은 박용진 의원, 민주당대표 출마 지지 호소

“도덕·정치적으로 떳떳한 당 만들 것”

“전쟁에 패배한 정수에게 다시 지휘권을 맡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 국민적 지지와 정책적 실력을 갖춘 유일 대항마는 박용진입니다.”

전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11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도덕적, 정치적으로 ‘떳떳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당대표 출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이야 말로 집 나간 토끼들을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하고 민주당을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고 승리를 향해 질주하는 ‘급행열차’다”며 “어대령이라는 막다른 골목이 아닌 박용진과 함께 국민이 기다리는 승리의 광장으로 나가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오만한 태도로 마구잡이 국정운영을 일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제대로 싸우겠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앞장서 보는 윤석열 정부에 당당한 비판을 내설 것”을 역설했다.

또 “무능과 독선에 맞서고 민생과 안보를 지키는 능력 있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해 2년 뒤 총선에서 승리하



전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1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도덕적, 정치적으로 ‘떳떳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당대표 출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고 반드시 5년 뒤에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전북도민들에게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음에도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통과시켜놓고 전북새민금특별자치도법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당 대표가 되어 김관영 지사와 함께 전북 발전의 새로

운 엔진 역할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전북도가 농생명산업과 문화산업의 수도로 나아가는데 당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전북도민들에게 어필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97그룹 단일화 여론에 대해 “민주당 전당대회의 역

동성을 위해 단일화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혁신을 공여하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세대론의 단일화는

“새민금특별자치도법 아직 해결 못해 당 대표가 되어 김관영 지사와 함께 전북발전 새 엔진 역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며 시기도 늦어졌을 전후도 상관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주를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당원당교상 우리의 중대 과제가 있다면 불출마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1년의 임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서울 종로구에서도 후보를 내지않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尹 부정평가 첫 60% 돌파

KSII 여론조사 결과

긍정 34.5% · 부정 60.8%

보수층 등서 부정평가 늘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II)가 TBS 의뢰로 지난 8~9일 진행한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 34.5%’ ‘부정 60.8%’였다.

긍정 평가는 계속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8.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8.9%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9.1%포인트에서 26.3%포인트로 벌어졌다.

부정 평가가 전주 대비 상승한 연령층과 권역은 만 18~29세(51.7%→68.7%), 인천·경기(52.2%→66.0%), 광

주·전라(58.8%→75.6%), 부산·울산·경남(44.9%→60.6%) 등이었다.

또한 성별별 부정 평가도 늘었다. 중·고층의 경우 같은 기간 부정 평가가 53.0%에서 67.8%로 14.8%포인트 많아졌다. 보수성향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24.6%에서 41.7%로 17.1%포인트 늘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11.7%에서 27.2%로 15.5%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무선 자동응답 방식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3%다. 2022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ii.org)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1

국주영은 도의장, 축하화분 아름다운가게 기증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이 의장 취임식 받은 축하화분을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에 기증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11일 오전 도의회 의장실에서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 김진형 공동대표와 김관준 운영위원장, 신은찬 본부장 등에게 화분 100여 개를 전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화분을 의미있게 활용하는 것이 보내주시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공인의 자세로 도민을 두루 살피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의회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형 대표는 “기증받은 화분은 도민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주와 군산·정읍 등 도내 6개 매장에서 판매할 계획”이라며, “수익금은 소외 이웃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개선”

도 자치경찰위, 위원회 의결사항 전북도·경찰청 등에 권고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지난달 제31차 자치경찰위원회를 열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업무 개선안’을 의결해 11일 전북경찰청 및 전북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에 따른 교통사고 인명피해 지속 발생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2019년 및 2020년 사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주민센터를 통해 면허를 반납하고 인센티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경찰서를 먼저 방문하거나 운전면허증 분실자가 반납하는 경우 지자체를 재방문해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도 지원기준 등이 상이한 곳이 있어 관련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형평성 있는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첫째,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이 면허증 반납을 위해 경찰서를 먼저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를 재방문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및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등을 자치단체

에 직접 통보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둘째, 전라북도는 예산 집행 시, 동일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군산시와 완주군은 예산 확보나 조례개정 등을 통해 역차별을 미연한 것을 권고했다.

이형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치경찰이 나아가 방향을 제시해 줬고, 향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김진표 국회의장,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예고

여야의 원 구성 협상 대체로 국회의장 장기간 공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은 오는 12일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 간 회동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인사총문특위와 민생경제특위 구성을 의장에게 요청했다는 말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 내일(12일) 오전에 양당 원내대표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11일) 생각은 있지만 오늘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하면 원내대표에 대해 열려가 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12일 열리는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 간 회동에서 김 의장이 여야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1

문승우 도의원, 해병대사령관 감사패 수상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지난 10일 제72주년 군산·장항·이리지구전투 전승행사에서 해병대사령관(김태성 중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문승우 의원은 평소 해병대 활동에 커다란 애정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이번 전승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헌신적인 지원으로 해병대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해병대像 구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 의원은 “해병대가 참가한 최초의 전투 현장이 군산에 있다는 사실도 자랑스럽고, 감사패까지 수상해 너무



나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군산·장항·이리지구전투 전승행사뿐만 아니라 해병대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2022 불안 여름 여행

더위에 지친 이틀이여~ 생동의땅 불안으로 오라!!

“핫 hot 뜨거운 여름을 부탁해!!!”

부안군 해수욕장 일제 개장 7.9.~8. 15.(38일간)

변산해수욕장 모항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 고사포해수욕장 위도해수욕장